

‘루키’ 김효주 ‘럭키’ 퍼팅에 웃었다

LPGA 에비앙 챔피언십 11언더파 우승

2위 카리 웨브에 18번홀서 극적 재역전



김효주(19·롯데)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정상에 섰다. 김효주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레방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클럽(파71·6천45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함께 11언더파 273타를 적어낸 김효주는 카리 웨브(호주·10언더파 274타)를 1타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특히 18번홀(파4)에서 재역전시키는 4.5m 버디퍼트가 극적이었다. 우승 상금은 48만 7500 달러(약 5억417만원).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3승을 올린 김효주는 세계 강호들이 출전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미국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김효주가 LPGA 투어 정식 멤버 가입을 신청하면 5년간 투어 출전권을 얻는다. 한국 선수가 비회원 자격으로 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08년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신지애(26), 2011년 US여자오픈에서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역대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우승한 김효주는 세계랭킹도 20위에서 10위로 도약할 예정이다. 장하나(22·비씨카드)와 허미정(25)이 9언더파 275타를 쳐 공동 3위, 최나연(27·SK텔레콤)도 8언더파 276타로 5위에 올랐다. 1라운드에서 메이저대회 최소타 기록(10언더파 61타)을 작성한 김효주는 1타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했다.

메이저대회를 일곱 차례나 제패한 베테랑 웨브와 챔피언즈에서 맞붙은 김효주는 2번홀(파3)에서 티샷을 홀 1m에 붙여 버디를 잡아 기선을 제압했다. 파를 지켜가던 김효주는 9번홀(파5)에서 다시 1타를 줄인 뒤 11번홀(파4)에 이어 12번홀(파4)도 버디로 연결,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위기는 찾아왔다. 김효주는 14번홀(파3)에서 3퍼트를 하는 바람에 무서운 기세로 추격해온 최나연, 장하나, 허미정, 웨브에게 1타차로 쫓겼다.

웨브는 15번홀(파5)에서 병크샷을 홀 옆 1m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 김효주와 동타를 만들었다. 16번홀(파3)에서 김효주가 다시 1타를 잃는 바람에 웨브는 1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김효주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여줬다. 17번홀(파4)에서 파 세이브에 성공한 김효주는 18번홀에서 희심의 두번째 샷을 날렸다. 불은 워터 헤어드를 넘어 그린 위에 안착했고 홀까지 4.5m를 남겨 놓았고 버디로 이어졌다.

긴장한 웨브는 퍼퍼트를 놓쳐 보기를 적어내면서 2006년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이후 찾았던 메이저 대회 우승 기회를 놓쳤다.

한편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함께 2언더파 282타로 공동 10위에 올라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다음 시즌으로 미뤘다. /연합뉴스



김효주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끝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우승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극낭자 전성시대

미셸 위 ‘안니카상’ 초대 수상자 선정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메이저대회 최강자’에게 주는 상의 첫 주인공으로 미셸 위(25·나이키골프)가 이름을 올렸다. 미셸 위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레방에서 막을 내린 에비앙 챔피언십까지 올 시즌 5차례 메이저대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해 합산한 결과 총 84점을 획득, ‘롤렉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의 초대 수상자로 결정됐다.

올해 신설된 이 상은 이번 시즌 열린 5개 메이저대회에서 10위 안에 든 선수에게 포인트를 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에게 준다. LPGA 투어는 메이저대회에서 10번 우승하고 2003년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소렌스탐의 업적을 기념하고자 그의 이름을 따 이 상을 제정했다.

선수들은 각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면 60점, 준우승자는 24점, 이어 3위 18점, 4위 14점, 이후에는 5위 12점에서 10위 2점까지 2점씩 차이를 뒤 점수를 받는다.

5개 메이저대회 순위에 따라 이 점수를 합한 결과로 수상자가 결정되는데, 상을 받으려면 그해 메이저대회에서 1승 이상을 올려야 한다.



미셸 위는 올해 6월 US여자오픈에서 첫 메이저 왕관을 썼고, 앞서 4월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는 준우승해 총 84점을 얻었다. 이후 7월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는 첫 탈락했고, 지난달부터는 손가락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어 메이저대회에서 더 많은 점수를 따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암벽여제’ 김자인 세계선수권 ‘리드’ 우승

‘암벽 여제’ 김자인(26)이 마침내 세계선수권 리드 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다. 김자인은 15일(한국시간) 스페인 히혼의 팔라시오 데 테포르테스 체육관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리드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IFSC 세계선수권대회는 스포츠 클라이밍 최고 권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다. 김자인은 2012년 이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나 당시를 포함해 2009년과 2011년에 리드 부문에서는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다.

예선과 준결승에서 김자인과 동률을 이뤘던 신에나(18·벨기에)는 36번째 홀드에서 미끄러졌다. 막달레나 뢰크(20·오스트리아)와 미나 마르코비치(26·슬로베니아)는 47번째 홀드를 넘어 47+를 기록했다.

결승전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에 나선 김자인은 48번째 홀드를 잡아 우승을 확정 짓고도 마지막 홀드까지 잡아내며 자신의 우승을 완력으로 장식했다. /연합뉴스



김자인은 “준우승을 세 번이나 해서인지 이번에 우승 운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경기를 즐길 준비가 돼 있었다”며 “원등으로 우승까지 하게 돼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고 기뻐했다. 김자인은 내달 1일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도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슈틸리케 신임 축구 사령탑

내달 10일 파라과이전 데뷔

축구협 평가전 일정 발표

10월14일 코스타리카

11월14일 요르단

11월18일 이란

우리 슈틸리케(60·독일) 신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데뷔전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 10일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15일 밝혔다.

5일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된 슈틸리케 감독은 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태극전사를 지휘한다. 파라과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7위에 오른 남미 강호다. 한국(57위)은 파라과이와 5년 맞붙어 1승3무1패로 팽팽하게 맞섰다. 슈틸리케호(號)는 파라과이전 나흘 뒤인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으로 장소를 옮겨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벌인다. FIFA 랭킹 15위인 코스타리카는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우루과이, 이탈리아, 잉글랜드와 함께 죽음의 조에 속했는데도 2승1무라는 성적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다크호스로 떠오른 바 있다. 역대전적에선 한국이 3승2무2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

11월에는 두 차례 중동 원정 평가전이 계획돼 있다. 태극전사들은 11월 14일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을 상대하고 이란 테헤란으로 옮겨 18일 이란과 대결한다.

FIFA 랭킹 56위인 요르단과의 역대전적에선 한국이 2승2무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FIFA 랭킹 48위인 이란을 상대로는 9승7무11패로 열세에 놓여 있다. 테헤란 원정에서는 승리 없이 2무3패만 기록했다. /연합뉴스

특허특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I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임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